

HIS Body



12월 25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대략 4월 1일경이 임신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면 된다.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법이 있다. 임신하기 전 마지막 생리기간의 시작일을 알면 출산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다. 가령 임신 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5월 10일 이면 달수에서 3을 빼고 일수에 7을 더하면 예정일이 나온다. 위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17일이 예정일이 된다. 간단한 산수이다. 그러나 1,2,3월은 3을 뺄 수가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수에 9를 더해준다, 연습해보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2월 15일이면 출산 예정일은?.....2월+9이고 15일+7이면, 그렇다 11월 22일이다.

따라서 12월 25일에 출산했다는 것은 위의 공식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3월 18일경이 마지막 생리일이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약 2주후가 된다. 그러면 실제적인 인간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4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일이 12월 25일인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게는 특별히 그 날을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그분'이 있음을 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25일인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 날의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의사인 나에게 다가오는 감격스러운 사실은 그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특별히 제작된 눈과 심장과 콩팥과 팔 다리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찢리면 피가 나고, 뜨거우면 데이고, 부딪히면 멍이 드는, 그런 육체를, 지금 나와 완벽히 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런 그분이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배아기, 태아기를 거쳐 신생아, 유소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다는 사실에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은혜와 감격이 밀려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 속에서 걸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초기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April 1st

예수님의 Flesh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세포 속의 유전자들을 정돈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중요한 순간들을 대비하신다.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시지만 겸손하시다. 처음부터 시작하신다. 초기 인간발달에는 몇 단계의 고비가 있다. 일단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고, 비슷한 세포끼리 모일 수 있어야 하고, 모인 세포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예수의 세포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다. 이 4월과 5월의 기간 동안 평생을 살아갈 심장, 폐, 간, 뇌, 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교장을 지내신 분이 다시 1학년부터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이 세포인 예수의 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MAY 1st

배아 예수의 심장이 보인다. 초기 단계의 심장은 정말로 하트모양을 닮았다. 그런 하트가 양증맞

게 발딱발딱 뛰고 있다. 이 심장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멈출 때까지 하루에 10만 번을 뛸 것이며, 하루에 지구를 두 바퀴 반을 움직일 정도의 거리를 다니며 예수의 몸에 피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심장을 만들기 위해 심장과 관계되는 유전자를 잠에서 깨우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많은 인자들을 몸소 정돈하셔서 혈관이 변하여 심장이 되게 하는 힘든 과정에도 조용히 참여하고 계신다.

AUGUST 1st

20주가 되었다. 태아 예수의 몸은 자라서 이제 약 20cm 정도의 키가 되었다. 그동안 내장을 키우기 위해 복부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구강과 식도와 위, 대장, 항문을 완성하였다. 실제로 흡수와 분비와 배설의 기능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듯하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마리아의 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마리아의 심장 박동 소리, 소화되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굶직한 목소리, 아! 육신의 아빠. 요셉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먼저 기능을 시작하는 청력은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된다. 이제 태아 예수는 바깥 세상의 일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DECEMBER 1st

37주가 되었다. 태아 예수의 몸은 약 2.9kg 정도 되었을 것이다. 37주의 평균 몸무게이다. 모든 기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막 비슷한 물질로 고급 코팅을 해서 양수 안에 있지만 피부가 붙어 터지지 않게 해준다. 그러는 사이 손으로 자기 몸의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잘 만들어 졌는지, 태어난 후에 몸에 가해지는 자극에 반응하기 위한 연습도 하고, 세상의 공기 중으로 나가 호흡할 폐를 테스트하려고 호흡 패턴을 조절한다. 이제 예수의 몸은 태어나기에 충분한 몸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어머니 마리아는 두꺼운 천으로 배를 두른다. 따뜻해진다.

DECEMBER 25th

어머니가 많이 걸으신 것 같다. 이제야 겨우 몸 가늘 곳을 찾으신 듯하다.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아까부터 압박감을 조금씩 느꼈는데 이제 점점 더 조여 오는 느낌이 든다. 아기 예수는 세상에 나오실 준비를 하는 듯하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다. 아빠 요셉의 긴장된 목소리, 말 발굽소리, 산고로 인한 어머니 마리아의 신음소리에도 아기 예수는 편안하지만 긴장을 늦추지는 않는다. 이제 드디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보게 될 것이

다. 예수의 머리가 마리아의 산도를 통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머리가 놀리면서 예수의 심장박 동수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곧 회복된다. 그리고 잠시 후,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는다. 여느 신생 아와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기 예수의 첫 번째 호흡이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를 몸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땀 흘리시고, 우리처럼 웃으시고, 우리처럼 아프시고, 우리처럼 눈물 흘린 그리스도의 몸.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시고, 주저앉자 있을 때 곁에 앉자 계시고, 울고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 오늘도 우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

** 지난 2년 동안 메디컬 칼럼 Cure&Care를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